

24.04.09 화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이다.

즉, 본인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해야 행복해지는 것이다.

출애굽기 속 주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처럼 나 역시 나를 소개할 때 진정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독보적인 내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24.04.09 화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나의 상태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요즘 외부 상황에 크게 휘둘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에게 집중해서 지금 내 상태,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행복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현재 마음을 돌보고

똑바로 보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24.04.09 화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여지껏 '이력서'라는 것은 내가 여태 쌓아온 것이 아닌
내가 이루기 위한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해왔다.

하지만, 말솜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나인 만큼 그대로 적어 온 내 인생처럼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믿음에 있어 하나를 더 적립하게 되었다.

24.04.11 목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우리의 세계가 같지 않다면

우리를 찾아오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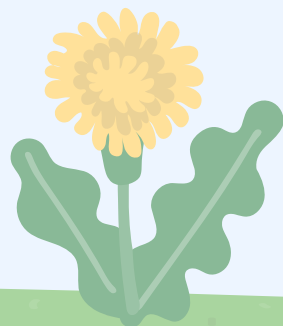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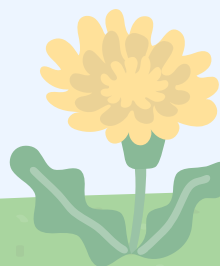
한 줄기의 빛처럼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불안한 상황속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빛, 어둠이 공존하는 인생길,
멀리 있는 파랑새를 잡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어쩌면 미로 끝 탈출구를
찾기 위해 달려 나가는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둠같은 우리 삶에
빛으로 임하시면, 내 마음 속 깊은 어둠은
언제 있었냐는 듯 금세 달아난다.
빛이신 주께만 거하자.
주 안에 내 인생의 정답이 있다.



인생에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밖에 없다.
어둠만 존재할 수도, 빛만 존재할 수도 없다.
살얼음과 같은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비칠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자.
그 빛은 배신하지 않으니 사랑으로 살아가자.

밥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저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저에게도 언젠가 밝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하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빛이다'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어둡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빛을 줄 수 있다는 게 뜻 깊었다.

